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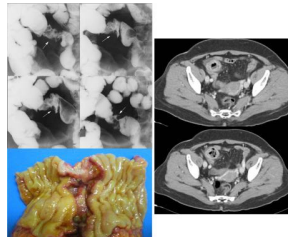
## ■S-111■

### Primary lymphoma of small intestine mimicking inflammatory enteropathy on radiologic images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Bucheon St. Mary'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Korea

\*Yun Sun Im, Jae Hyuck Chang, Chang Whan Kim, Tae Ho Kim, Jin Young Park, Mi Jeong Lee, Il Ho Maeng

소장에서의 원발성 림프종에 대한 진단적 방법으로 소장내시경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비용과 시행의 어려움 때문에 CT 및 소장 바륨 검사가 여전히 영상 진단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고, 진단의 어려움과 합병증의 위험성으로 인해 수술적 절제 역시 진단적 주요 방법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상학적 검사에서의 소장의 림프종은 다발성 결절, 침윤성 병변, 종괴, 용기병변, 장관외 종양 소견이 일반적이며 드물게 장루 형성소견을 나타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달리 염증성 장관질환을 시사하는 비전형적인 영상학적 소견을 보이면서 진단적 복강경 수술을 통해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이 진단되었던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65세 여자 환자가 수개월 전부터 지속된 간헐적인 복부통증으로 내원하였다. 검사실 소견 및 상부, 하부 내시경 소견에서도 정상 소견 관찰되었다. 단지 영상학적 검사에서 염증상 병변을 의심되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CT상 회장 원위부의 짧은 분절에서 장벽이 조영 증강되고 부어 있으면서 주변의 반응성 림프절 비대가 있었고 이어서 시행한 소장조영술에서도 회장의 짧은 분절의 장벽 비후 소견이 관찰되는 염증성 병변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보였다. 결핵이나 염증성 장질환 등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소장내시경을 통한 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환자의 사정으로 인해 복강경으로 진단적 회장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주변의 림프절 비대를 동반한 궤양의 염증성 병변이 관찰되었고 신속조직검사에서 림프절의 반응성 증식소견을 보여 영상 검사 결과와 합당한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조직검사 결과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으로 확진 되었다. 영상학적 방법이 진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비전형적인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S-112■

### 재발성 혈변으로 나타난 복부 방선균증 1예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Bucheon St. Mary'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Jin Young Park, Sok Won Han, Il Ho Maeng, Mi-Jeong Lee, Yun Sun Im, Chang Whan Kim, Tae Ho Kim, Jae Hyuck Chang

방선균증은 만성 화농성 육아종성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드문 질환으로, 복부 방선균증은 전체 방선균증의 20~25% 정도를 차지한다. 주로 위장관 천공 후 많이 발생하고, 맹장염, 게실염, 궤양 혹은 담낭염 등의 염증성 질환으로 복부수술을 한 병력이 있는 경우에 많다. 임상 증상으로는 발병된 장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복통과 발열, 설사 혹은 변비 등의 비특이적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진단이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 특징이다. 복부 방선균증 환자는 대개 우하복부에 둔감한 동통을 호소하고, 딱딱하며 약간 압통이 있는 종괴가 만져지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증상 때문에 복부 방선균증으로 확진되기 전에 복강내 종양이나 농양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67%로 국내에 보고된 바 있다. 본 저자들은 복부 수술 병력 없는 54세 남자 환자가 앞서 언급한 복부 방선균증의 일반적인 증상인 복통과 발열, 복부 종괴 등의 증상과는 달리, 재발하는 혈변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허혈성 장염으로 오인되어 치료받던 중, 대장조직 검사 결과 복부 방선균증을 진단받고 페니실린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된 1예를 경험하였다. 이와 같이 복부 방선균증이 혈변을 주 증상으로 나타난 경우는 국내에서 한번도 보고된 바가 없어,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